

올해 산단 중대사고 22건...작년 연간 발생 앞질러

산단공 관할 69곳 지난달까지 집계
18명 숨져...최근 5년간 141건 발생
대불 10건 중 7건 2025년 이후 집중
김원이 “사고 다발 산단 예방대책 강화”



기존에 ‘산업재해’로 포괄해 집계하던 사고를 원인과 유형별로 세분화해 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화재 27건(19%), 끼임 26건(18%), 깔림 21건(15%), 떨어짐 17건(12%), 폭발 14건(10%), 유해화학물질 누출 13건(9%), 질식 8건(6%), 감전·기타 7건(5%), 부딪힘 6건(4%), 맞음 2건(1%)으로 나타났다.

산단별로는 울산미포산단에서 22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전남광주 지역인 여수산단은 13건, 광양·대불산단은 각각 1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불산단에서는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발생한 중대사고 10건 가운데 7건이 2025년 이후에 집중됐다. 사고가 일부 대규모 제조업·화학산업 중심 산단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단지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단공은 산업단지 안전을 위해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28개 지역에 구축하고, 13개 지역에서 통합안전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사고 건수가 8월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선 만큼 기존 안전사업이 실제 사고 예방과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에서 반복되는 중대사고를 막으려면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야 한다”며 “사고 다발 산단과 고위험 업종을 집중 관리하고, 사고 유형에 맞는 예방시설과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조국혁신당 현장 최고위원회

신장식 혁신당 대표, 5·18묘지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등이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주의 문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 좋은 메가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특별시당, 여수 석화산단 위기 해법 찾는다

첫 권역별 협의체...석유화학 사업재편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업과 해법 모색에 나섰다.

전남광주특별시당은 21일 오후 여수상공회의소 열린마루에서 안도걸 위원장 주재로 제1차 권역별 협의체인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시당 출범 이후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된 ‘권역별 협의체’의 첫 번째 행보다.

최근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축 등 구조적

변화에 놓인 여수 석화산단의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관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과장과 지역경제진흥과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서영학 여수시장,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이석주 특별시의원, 강현태·구민호 여수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천NCC,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엔비화학, 폴리미래, 한국바스프,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7개 주요 석유화학 기업의 대표와 공장장들도 함께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도걸 위원장은 “비공개 토론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연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산업부 관계자들에게 “여수 석유화학 단지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R&D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한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산업은 촘촘히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인 만큼 묵묵히 지역 경제를 지켜온 연관 기업들이 구조개편의 희생양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특별시당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이 안고 있는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협의체’를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명진 기자

주철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해수부 해양레저관광협 위탁 근거 등 마련
“협회 전문성·현장 경험 등 정부 정책 활용”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장관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레저관광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주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에 이어 법정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도 올해 정식 출범하면서 우리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협회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정부 정책에 적극 활용하는 등 해양레저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명절 고속도로 여자화장실 ‘대란’ 이유 있었네

도로공사 예산 반토막·이용객 수 감소
조인철 “긴 줄 타상행정 결과...대책 시급”



여성 변기 수는 남성 변기 수(대·소변기 합산)의 1.5배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남성 변기 수가 여성 변기 수보다 많거나 동일한 휴게소가 전국 곳곳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도로공사의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에서도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인원을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화장실 이용객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차 확보

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수요 예측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도로공사는 명절 등 고객이 집중되는 기간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화장실 설치 예산’마저 최근 3년 사이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명절 임시 화장실 설치 예산은 2024년 1억1천만원에서 2023년 4천만원으로 63.6% 감소했다.

조 의원은 “명절 귀성길마다 여성 화장실 앞에 끝없는 대기줄이 늘어섰던 것은 단순한 이용객 집중 때문만이 아니라 도로공사의 기준 미달 시설 방치와 예산 삭감이라는 타상행정이 낳은 결과”라며 “도로공사는 하루빨리 화장실 이용 수요와 혼잡도를 정확히 예측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화장실 전면 개보수와 시설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